



해외

WORLD

“세계 경제불황 도덕성 위기 때문”

인도 세미나서 달라이 라마 지적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은 도덕성의 위기가 낳은 탐욕과 부패로 인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유럽·중남미 등 전세계가 경제공황으로 고통 받는 가운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입을 열었다. 그는 1월 12일 인도 북부 바라나시(Varanas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세계에 만연한 이기심, 자아성찰과 정신문화부족이 현재 세계를 금융시장위기로 이끈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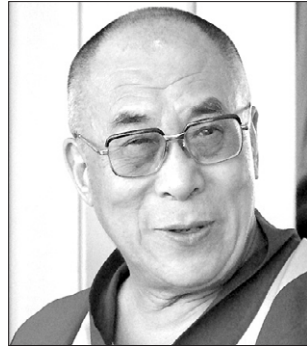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최근 2만여 학생들이 모인 티베트고등불교연구원(CIHTS: Central Institute of Higher Tibetan Studies)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재산을 소유하게 됐고 그것이 다른 것들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잊었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자아성찰과 정신문화의 결핍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변했고 결국 경제후퇴현상을 초래했다”며 “현재 직면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존재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육을 가지 있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소비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이기심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의 이번 연설에 대해 대변인 텀파 체링(Tempa Tsering)은 “달라이 라마가 ‘우리는 상호존재적인 존재’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AFP통신은 최근 “1월 13일 로마시 정부가 2월 방문예정인 달라이 라마를 로마의 명예시



달라이 라마는 1월 12일 인도 바라나시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세계 경제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민으로 임명하기 위해 초청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AFP는 로마시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달라이 라마는 명예시민 임명장을 지난 가을에 받기로 했으나 건강상 문제로 마를 방문하지 못했다”며 “그가 올지 안 올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2008년 “가까운 시일 내 물러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너는 기자

유럽 버스광고 ‘종교 전쟁 중’

영국 무신론자 모임 ‘神 없다’ 광고해

“아마도 신(神)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지난해 12월부터 영국 무신론자 모임인 ‘영국인본주의자협회’가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 800대에 설치한 광고판에 실린 문구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1월 15일 “영국에서 시작된 ‘종교 반대 버스광고’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무신론자와 종교단체 간 ‘종교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무신론

자들은 1인당 5파운드 모금 운동을 해 모은 14만파운드(한화 약 2억 8000만원)로 버스와 지하철에 광고를 내고 있으며 스페인, 이탈리아 등 무신론자 단체들도 각각의 언어로 번역해 새해부터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반(反)종교 광고가 유럽에 확산되자 각각 기독교 단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기독교계 신문은 “신은 존재한다. 예수와 더불어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라는 버스 광고를, 영국 기독교 단체는 8월 무신론 버스광고가 광고법 위반 행위라며 광고심의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너는 기자

벨기에 왕세자 부부

한국불교예술 관람

벨기에 왕위계승 서열 1위 필립 왕세자와 마틸드 왕세자비가 1월 13일 브뤼셀 보자르예술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왕세자 부부는 한국문화페스티벌 일환으로 열린 한국 불교예술 전시회를 관람했다. 특히 마틸드 왕세자비는 국보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 관심을 드러내며 한국불교 예술의 독특함에 찬사를 보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막한 보자르 한국문화페스티벌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종묘제례악 공연, 백남준 비디오 아트전, 불교예술전시회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했으며 다음 달 말 폐막한다. 이너는 기자

“불교자살방지대책위’ 만들어야”

종단협 산하 불교인권위 자살문제 관심 촉구

국내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평균 11.2명, 한국 24명)로, 자살이 사망원인 가운데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다음인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경제비관 자살과 유명연예인을 따른 모방 자살로 2007년 하루 평균 6.5건에서 2008년 9건으로 자살상당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자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살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앞장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위(위원장 진관)는 1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가 자살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며 ‘불

교자살방지대책위’ 구성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연이야말로 소중한 인연”이라며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 불교계는 자살방지대책위를 만들어 생명존중의 날 선포 등 전국민적 생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의 촉구는 날로 증가하는 자살에 불교계의 관심이 미약하기 때문에 발표했다. 반면 타종교의 경우 개신교계는 자살전담상담기구 ‘생명의 전화’로 기여하고 있다. ‘생명의 전화’는 1976년 개관, 매년 생명사랑 캠페인, 대학생 전국 자살예방투어를 개최하고, 중·고

등학교에 ‘자살예방버스’를 보내 매년 수 천명의 사람을 자살로부터 구하고 있다.

불교계도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택) ‘자비의전화’에서 상담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생활상담으로 인해, 자살문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1990년 상담센터를 개설하며 자살상담을 준비했지만, 불교상담과 부부·이성·가정문제 상담이 대부분이어서 자살문제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자살 대응에 대해 한 상담 분야 전문가는 “자살문제 해결에는

찾아가는 능동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자살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소외감으로 그들이 찾아와 상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제는 자살방지 캠페인과 각 사찰별 상담결연, ‘따뜻한 문자 한통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생명 존중’, 오계의 불살생계(不殺生戒)는 살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경시의 또다른 이름인 자살, 이를 구제할 불교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다. 노덕현·이너는 기자

사회복지업무 최선 다짐 “복지계 리더 되겠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 승가원서 봉사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관계자들은 1월 11일 이천 승가원(원장 묘진)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는 강운구 수석(청와대 불자회장)을 비롯해 각 비서관들과 수석실 및 비서관실 행정관 및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묘진 스님은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복지타운 식구들에게 큰 기쁨 주고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통해 당부했다.

이어서 강운구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서비스, 복지사업에도 도입해 직접 방문했다”며 “복지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펼쳐라 일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가한 정승봉 이천시 부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선에서 일하는 모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관계자들은 1월 11일 승가원(원장 묘진)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습을 보고 감동한 적이 있다”며 “그런 각오로 사회복지업무가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자비복지타운 관련 동영상 시청하고 복지타운 식구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시설을 둘러봤다.

오후에는 청와대 수석실 관계자들과 복지타운 직원들이 직접 깎두기를 만들고, 장애가족들을 위해 봉어빵, 어묵, 떡볶이 등 간식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강운구 수석은 장애가족들에게 후원금(100만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너는 기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009 계획 발표

“다문화 가정과 실업가정 등 소외 계층을 끌어안는 복지계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외)은 1월 15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 가족 복지사업과 저출산 극복 사업, 불교 사회복지 전문 인재 양성, 사회 안전망 구축 등 2009년 주요사업계획을 밝혔다.

사회복지재단은 올 한해 지역 사찰에서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해 20여 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 유지하는 등 다문화복지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열불봉사단의 호스피스활동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불교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외 스님은 “경제난 속에서 이중고를 겪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실업가정과 청년실업자를 끌어안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너는 기자

“항상 베푸는 삶 사는 사람 되길”

고운사 장학금 전달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1월 10~12일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지역 중·고등학생 40명에게 작년에 이어 2회째 1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장학금전달식에서 호성 스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꾸준히 학업에 정진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학

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며 “부처님 같이 항상 베푸는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의성 고운사에서 사찰문화 체험의 하루를 보낸 학생들은 11일 서울 KBS를 견학, 공개방송 방청을 했다. 이어 경복궁 등을 관람하고 12일에는 수원 드라마센터에서 문화탐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민 기자·박영애 영주지국장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예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임원공고

종 정 각 압
총무원장 헤 일

원로위원 범 아	서울총무원장 법 루	종정예경실장 헤 득	호법부장 정 진	공보국장 지 응
원로위원 해 월	부산총무원장 헤 오	교육부장 도 도	조사부장 대 응	문화국장 헤 천
사정원장 덕 산	강원총무원장 지 산	감찰부장 자 은	기획부장 동 안	교육국장 수 진
호계원장 득 선	충북총무원장 지 암	문화부장 보 명	복지부장 동 법	포교국장 지 암
교육원장 묘 각	전북총무원장 장 원	포교부장 월 암	사회국장 헤 각	규정국장 호 산
포교원장 진 광	경남총무원장 일 봉	규정부장 도 천	감찰국장 지 오	
승정원장 적 파 지 공				
문화원장 지 도				
재정원장 청 명				
비구니원장 아 산				
총무원부원장 무 심				
교육원부원장 헤 명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종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종도 사유재산 보호 및 인정서 발급 / 참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할 스님들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무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직) 0502-666,5000 / FAX 053)621-6237